

이 자료는 2014.8.26(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사전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자문회의(8.26 예정)
등의 논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2014.8.26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 추진현황

II. 평가 및 진단

III. 창조금융 성과확산을 위한 실천계획

1.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확산
2. 모험자본 시장육성
3.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I. 추진현황



I. 추진현황 : 경제·금융의 패러다임 변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금융의 새로운 역할

경제성장 동인

‘월화수목금금금’



창의·아이디어
(기술금융)

금융의 실물지원

단순 자금중개



창조금융시장
(창업·벤처 등 신성장지원)

금융업 수익기반

양적성장(시장확대)



차별화된 서비스
(해외진출, 고부가서비스 등)

금융 선진국들도 끊임없이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



92년 퇴직연금(Superannuation) 도입 ⇨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서의 성장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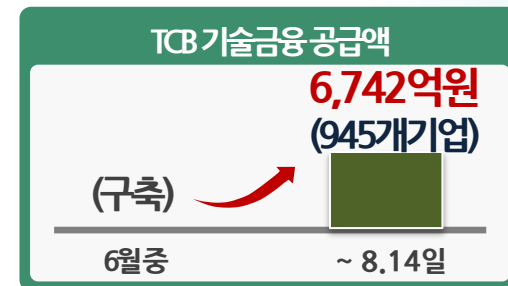
씨티은행(소매금융), 피델리티(퇴직연금), 골드만삭스(대형 기관투자자) 등 핵심역량 배양

I. 추진현황 :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 마련과 “초기 성과 가시화”에 주력

기술금융 인프라

- 기술정보 DB 구축
 - 기술정보 400만건 → 9월까지 1천만건 집중
- 기술신용평가기관 3개사 선정
 - 8.14일까지 945개 기업평가, 6,742억원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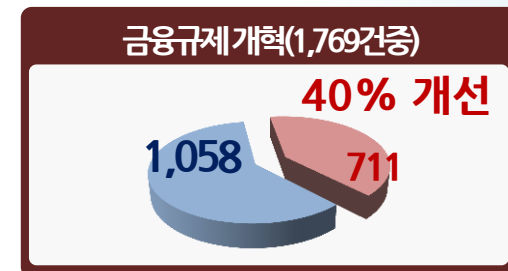
모험자본 육성

- 코넥스 시장 출범(13.7월), 상장활성화방안 마련(14.8월)
-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 3년간 6조원 조성, 1년차 2.4조원(계획대비 0.4조원↑)



금융규제 개혁

-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
- 현장체감도가 큰 구두지도 등 ‘숨은 규제’ 정비



I. 추진현황 : 기술금융의 초기성과(성공사례)

기술신용평가

◇ 경기 김포 소재 A사

- 주력기술 : 의료영상전송장치
- 14년 설립 (종업원 14명)
- 자본금 5천만원, 매출 2.3억원(14.상)

• 은행신용대출

거절

- 업력, 매출액 부족 → 신용등급 CC

• 기술금융대출 :

3억원

- 기보 기술평가 T4, (신용등급 +3단계 ↑)



창립 첫해 8억원 매출 예상

코넥스 상장

◇ 대구 달서구 소재 B사

- 업종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97년 설립 (종업원 74명)
- 자본금 158억원, 매출 189억원(13년)

• 코스닥 상장신청(12.6월)

실패

• 13.7월 코넥스 상장 **1호기업**

(총 428억원 사업화자금 조달)

• 14.7월 코스닥 이전상장

성공



매출액 22%증가(14.상반기)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II. 평가 및 진단



그러나,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미흡

⇒ 기업인의 기대와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간극(Gap)**이 존재

정책시차

〈개인신용대출 사례〉

- 개인대출의 연대보증 관행개선

'95 ○ 신용정보법제정

'97 ○ 개인신용정보 집중체계구축

'03 ○ 개인연대보증 일부 제한 (5천만원)

'05 ○ 개인신용정보회사(CB사) 설립

'08 ○ 개인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금융권 보신주의

기술금융 역량미흡

- 보증·담보 의존
- 예대마진, 단순중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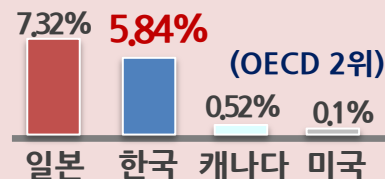
모험자본시장 미발달

- 자산운용 보수화
- 높은 은행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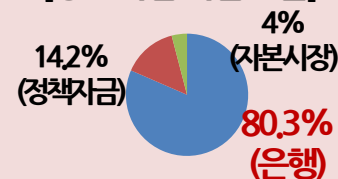
불합리한 감독관행 · 성과보상유인

- 일관성 없는 감독
- 사후 부실문책
- 획일적 성과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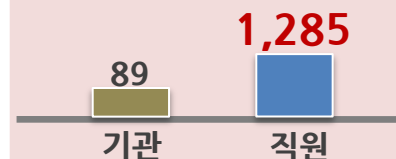
[GDP대비 정책보증]



[중소기업자금조달]



[감독당국 제재건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도 **보신주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

기술 심사 역량 부족

“시장의 자연스런 기술평가가 이전에 벤처지원 정책자금부터 쏟아지는 식” (7.28일 한국경제)

“작년에 적자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아” (8.6일 조선일보)

모험 자본 부족

“시중의 돈이 담보대출 등 소위 ‘비창조금융’에 몰려 있어” (8.1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간담회)

“『창조경제』 촉진에는 은행보다 자본시장 역할이 더 중요” (8.11일 한겨레)

감독관행·성과보상체계 불합리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 때문에 금융권 전체에 보신주의가 흐를 수밖에” (8.5일 은행권 간담회)

“부실을 주홍글씨 처럼 여기는 금융회사 인사평가시스템” (7.29일 매일경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Ⅲ. 창조금융 성과확산을 위한 실천계획

1. 기술금융의 조속한 현장확산
2. 모험자본 시장육성
3.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 조성

창조금융 확산을 위한 3대 실천계획

기술금융 현장확산

-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활성화
- 기술가치평가 투자 확대
-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부처협업)
- 기술금융 우수사례 성과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 성장사다리펀드 역할 강화
- 창업투자자금 확대
- 성장, 회수지원 활성화
- 자본시장 활력회복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 관행 개혁
- 금융사내 인사상 불이익 근절
- 은행 혁신평가 제도 도입
- 사후적발 검사관행 개선

기업의 기술력(등급) 평가를 우선 추진

기술가치평가의 요건

거래시장 활발한 기술거래를 바탕으로
기술의 **시장가격** 형성

현금흐름 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

신용위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

기술거래시장이 없고, 현금흐름 예측력도
부족하여 **기술가치평가 본격화 곤란**

기업의 기술력(등급평가)을 반영하는 노력부터 추진

- 기술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과 달리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

⇒ 상대적으로 평가가 용이한 부도 확률
기반의 '**등급 평가**'를 우선 추진

기술가치평가



기업의 기술력(등급)평가

AAA, ..., CCC

한국감정원 설립사례(69년)

- 은행의 부족한 부동산 가치평가 능력 보완
→ 부동산 가치평가 객관성, 신뢰성 제고

우선, 은행권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기술금융에 최대 3%p 이차보전
 - 이차보전확대→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대출, 금리감경
- 기술신용대출에 0.5% 저리자금 공급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3조원)
-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시 신용위험 분담
 - 정책금융공사에서 최대 60%까지 부실위험 분담
- 산기보 보증지원, 출연료 차등화 등도 추가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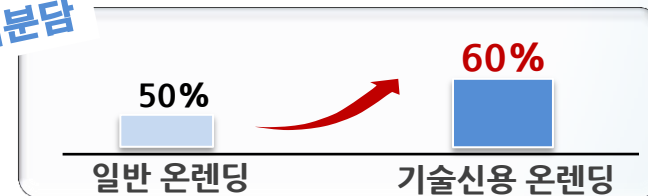
이차보전



저리자금



위험분담



성공사례 확산

- 기술금융 박람회 개최
- 우수직원 표창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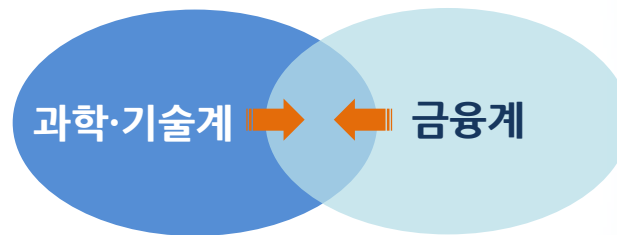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로 확산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 기술가치 투자펀드 신규조성 (3,000억원 규모)
 - ❖ TCB기술평가 기반으로 기술·지분투자 시행
- 기술가치투자의 회수지원 (약5,000억원으로 확대)
 - ❖ 지식재산회수펀드 (830 → 2,000억원)
 - ❖ 세컨더리펀드 (1,275 → 2,675억원)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산은의 역할 강화
 - ❖ 지재권을 사고파는 거래를 통해 기술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협업

- 과학, 기술계와 금융계 사이의 간극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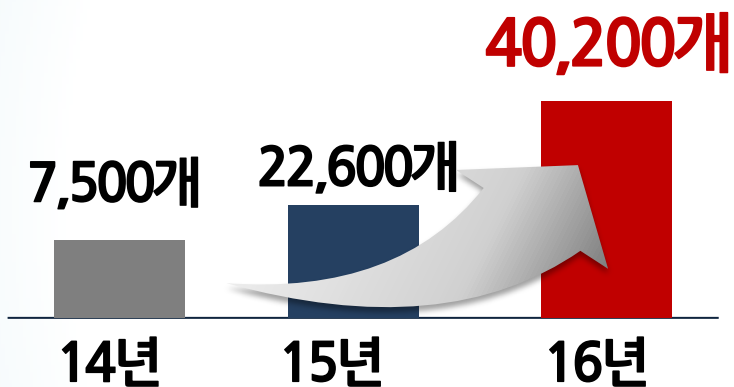


- 범부처 TF구성·협업(14.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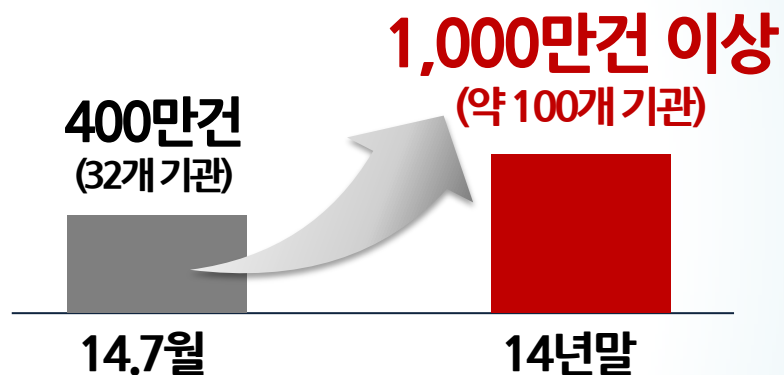
- ① 투자가 관점의 평가모델 개발
- ② 정부R&D에 기술신용평가(TCB)활용
- ③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
- ④ 부처간 기술평가정보 공유방안 등

향후 3년내 금융권에 기술금융이 뿌리내리도록 추진

TCB 기술금융 지원기업



TDB 기술정보 집중



“벤처기업 28,545개, 이노비즈기업 16,882개에 대한

평가정보만 구축하여도 큰 국가 자산이 될 것임” (8.13일 기술금융 전문가 간담회)

성장사다리펀드를 제2의 국민투자기금으로 활용

국민투자기금(73년)

- 운영: 73년 ~ 03년
- 조성: 은행(74%), 보험(14%), 공공기관 (12%)
- 지원규모 : 7.5조원(74 ~91년까지)

지원대상

철강, 조선, 기계,
화학등 기간산업

장기지원

8~10년 장기대출
자금공급

저리자금

일반금리보다
5%p저리 지원

산업화 기반 마련

성장사다리펀드(13년)

- 조성: 3년간 6조원(14.8월 현재 2.4조원)
- 용도: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지원

창업지원

- 스타트업지원
- 엔젤투자
- R&D사업화

성장지원

- M&A 펀드
- IP투자
- 해외진출지원

회수·재도전

- 세컨더리펀드
- 재기지원
- 코넥스투자

창조경제 기반 마련

모험자본시장을 창조금융의 주축으로 육성

성장사다리펀드의 모험투자 선도

창업투자

- **창업펀드** 확대(1,200억원)
- 설립3년내 **초기기업** 투자확대 (20%→40%)
- **후속투자**(follow-on)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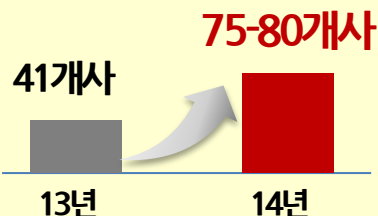
성장,회수 지원

- M&A펀드 1조원 조성(3년간)
- 세컨더리펀드 확대 (1,400억원↑)
- 회생절차기업 등 재기지원
펀드 추가조성(1,4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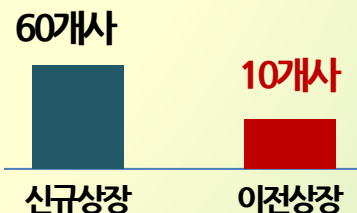
자본시장 활력회복

- 자본시장 인프라·규제 정비(14년중 완료)
 - 크라우드펀딩법률, 증권사 신용공여한도 확대 · NCR 규제완화, 사모펀드 규제 개선 등
- ‘추가상장 활성화 방안’ 시행(15.1월부터 순차시행)
 - 상장사 투자세액 공제확대, BW 공모허용,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공시부담 경감 등
-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촉진방안 마련(14년 하)

[코스피, 코스닥 상장목표]



[14년 코넥스 상장목표]



사후 제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관행 개혁

제재대상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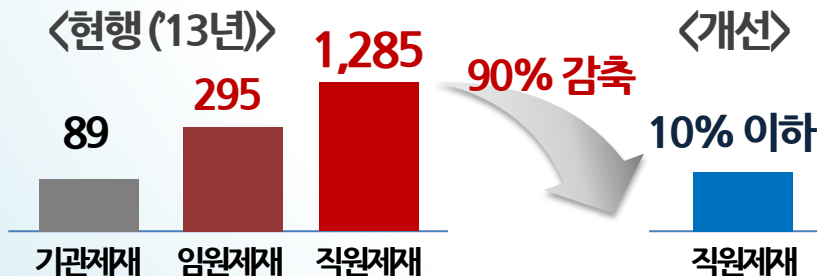
- 제재시효제도(예, 5년) 도입
- 원칙면책예외제재 전환(Negative)

제재방식 개선

-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직원제재원칙폐지
(직원 잘못은 금융회사 내부징계로 위임)
- 금융회사 기관제재는 강화

감독재량 축소

- 감독·검사 매뉴얼·해설서 정비
- 검사·제재 사례, 기준 공개
- 'No Action Letter' 활성화



금융회사내 인사상 불이익 근절

- 부실대출 면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
 - ❖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대출은 면책
 - ❖ 창조금융에 적극적인 직원을 인사에 우대

사후적발 검사관행 개선

- 관행적인 현장검사 최소화
- 리스크관리, 컨설팅 등 사전예방적 감독 중점
- 심각한 건전성 문제, 다수 소비자 피해 중심

보신주의를 조장하는 은행 성과보상체계의 변화를 유도

(기존) 경영실태평가 (CAMEL-R)

정태평가 / 리스크관리 중점



(신설) 혁신성 평가 (Innovation)

동태평가 / 경쟁·혁신역량 중점



평가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정책
유인

- 정책금융 차등지원
- 우수은행 포상 등

+

시장
평판

- 혁신 등급과 보상수준
비교 공개

은행 내부 성과평가·
보수체계 개혁 유도

현상유지, 보수적업무관행
→ 적극적, 혁신적업무우대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로** 눈을 돌리도록 규제환경 혁신

국내 경쟁 촉진

- Better Regulation

- ❖ 좋은 규제: 유지, 강화, 준수비용 절감
- ❖ 나쁜 규제: 폐지, Negative 전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축적된 국가역량을
금융한류의 지렛대로 활용



지속적인 평가·점검체계 구축 → 실제 관행의 근본적 변화 촉진

금융혁신위원회 운영

- 객관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
 - ❖ 금융업계추천 민간전문가등 20인 내외
- 금융혁신 실천상황 지속 점검

주요 역할

-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 평가
-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금융문화관행의 근본적 변화 유도



“빠르게”, “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